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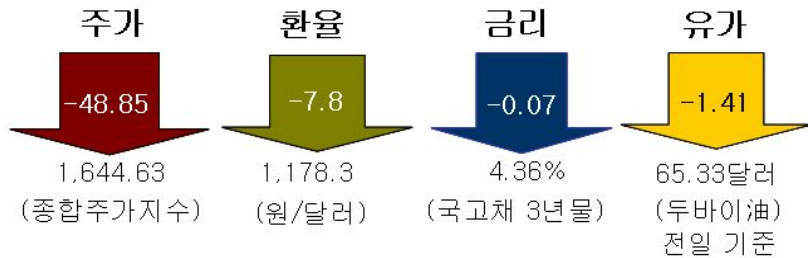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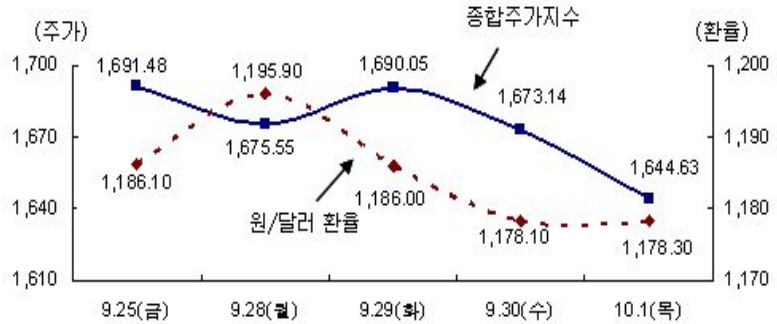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25~10.1)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HRI 한반도평화지수 - 남북 관계 기대지수 상승	1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홍 순 직 수석 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3669-4405, csk01@hri.co.kr)
 : 신 힘 철 연구원 (3669-4125, hcshin@hri.co.kr)

Executive Summary

□ HRI 한반도평화지수 - 남북 관계 기대지수 상승

1. HRI 한반도평화지수 개요

(연구 목적) 한반도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낸 지수이다. 「HRI 한반도평화지수」(HRI Peace Index, HPI)는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방향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특징과 구성)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하나의 방법론만을 적용했던 기존의 평화지수와 달리,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라는 특징을 지닌다. 주관적 분석 방법론이 적용된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뤄지며, 객관적 분석 방법론이 적용된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부문 주요사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 '이벤트지수'와 남북 간의 경제와 사회문화 및 인도 부문의 동향지표를 분석한 '교류지수'로 구성된다.

또한, 다음 분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기대지수'를 산출하여 향후 남북 관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총 100점 만점(전문가평가지수 50 + 정량분석지수 50)으로 구성되며, 중립 상태인 50을 기준으로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남북 관계는 대립과 위기상황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남북 관계는 화해·협력 및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HRI 한반도평화지수 조사 결과

(현황 평가와 전망) HRI 한반도평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남북 관계는 긍정적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분기에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009년 3분기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40.2이며, 4분기의 한반도평화 기대지수는 53.8로 나타나 향후 남북 관계는 현재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량분석지수를 조

사해본 결과, 2분기 29.3에서 3분기 39.8로 상승하여 남북 관계가 지난 분기에 비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4분기의 기대지수가 높게 나온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 양자회담 논의와 이산가족 상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분기 평화지수가 40.2를 나타냄으로써 여전히 중립 상태인 50 이하를 밑돌고 있으므로, 남북 관계는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부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는 40.5, 정량분석지수는 39.8을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심리 및 평가지수와 남북 간의 실제 교류실적 및 사건 사고 등의 정량지수 모두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자 간의 지수 격차가 근소한 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현재의 남북 관계와 실제 데이터를 통한 정량분석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량분석지수를 구성하는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이벤트지수가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3분기 들어 북한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데 반해 남북 간의 실제적인 교류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향별 평가)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진보적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총 63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평가지수 조사 결과,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는 진보적 성향의 지수 37.8보다 높은 50.2로 나타났다. 4분기 기대지수에 있어서도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진보 성향의 지수 51.7보다 높은 57.6을 나타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009년 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결과 >

구분	HRI 한반도평화지수					기대지수
	정량분석지수	전문가평가지수		전문가평가지수		
		교류지수	이벤트지수			
지수	40.2	39.8	31.5	48.1	40.5	53.8

3. 남북 관련 우선 정책 과제 설문 결과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대한 대응)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정책으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90.5%)은 우리 정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다시 말해, 최근 북한의 유화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국 간 대화 복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관계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47.6%) 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42.9%)”고 응답하였다. 반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하였다.

(남북 관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 과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 정책 과제는 크게 경제 부문의 협력 확대(41.8%), 정치 부문의 관계 활성화(38.5%), 사회·문화·인도적 부문의 교류 및 지원 확대(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첫째, 경제 부문에서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14.8%)와 남북 경협 확대(13.8%), 개성 공단의 활성화(6.9%), 그리고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11.6%)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10.6%),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의지 표명(9.5%),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문화·인도적 분야에서는 쌀·비료 및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 확대(13.2%)와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4.2%)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합적인 현안별 과제로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와 남북 경협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정치·군사 부문의 관계 활성화보다는 경협 확대와 인도적 분야의 대화 복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량분석지수 조사에서도 경제와 사회문화 및 인도적 부문의 교류지수가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였으므로,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환기의 현 시점에서 볼 때, 경제 현안과 인도적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여 신뢰를 구축한 뒤, 당국자 간 회담 정례화와 북한 조문단 답방 형식의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정치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1.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의 정의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
- 본 연구에서는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 HPI)라고 명명함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 목적과 의의

- **(연구 목적)** 현재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남북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현재 국면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기존의 평화지수 연구사례 >

구 분	내용
한반도 평화지수 (한양대)	- COPDAB(Conflict Peace Data Bank)을 기본 모델로 하여 매일 뉴스 기사를 지수화 하여 남북 간 평화의 정도를 보여줌 - (발표 시기)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 매월 지수를 발표
남북 통합지수 (서울대)	- 남북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제도, 관계, 및 인식들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하여 남북 간 통합된 정도를 보여줌 - (발표 시기)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지수를 발표
동북아 평화지수 (제주평화연구원)	- IDEA(Integrated Data for Events Analysis)의 기준을 이용하여 한일 간의 갈등 및 평화적 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보여줌 - (발표 시기) 2008년 10월 발표
세계 평화지수 (세계평화포럼)	-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분야의 평화적 상태를 측정하여 지수와 각국의 평화 순위를 보여줌 - (발표 시기) 200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발표
한반도 안보지수 (삼성경제연구소)	- 한반도와 주변 4강대국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지수로써 보여줌 - (발표 시기) 2005년 개발, 2007년부터 매분기 발표

-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의 평화지수들은 대부분 하나의 방법론만이 적용되어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여주는 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기존의 평화지수는 크게 설문 분석, 이벤트데이터 분석 그리고 동향데이터 분석 중 주로 한 가지 연구방법만이 적용되었음
 - 각각의 분석 방법은 평화지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장점을 가진 동시에 한계점이 어느 정도 존재함

< 기존 연구 방법의 장점 및 단점 >

구 분		내 용
설문 분석	장 점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지수에 반영
	단 점	전문가의 주관이 반영되기 쉬우며 객관적 자료들이 배제됨
이벤트데이터 분석	장 점	남북 간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지수에 반영
	단 점	언론기관의 미발표사건은 모두 배제되며 남북 간 시계열 데이터를 지수에 반영할 수 없음
교류데이터 분석	장 점	공식 발표되는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지수의 객관성 제고
	단 점	남북 간의 중요한 이슈나 사건들을 지수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상 및 기대치를 반영할 수 없음

- (HRI 한반도평화지수의 특징) 기존의 평화지수와 달리,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임
 - 설문 분석, 이벤트데이터 분석 그리고 동향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연구 방법이 가진 한계점들을 상호 보완하도록 하였음
 - 통합지수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주관적 개념의 '전문가평가지수'와 실적 통계 자료에 기초한 객관적 개념의 '정량분석지수'로 구분하였음

< HRI 한반도평화지수의 구성 및 연구 방법 >

구 분	연구 방법
전문가평가지수 (주관적지수)	한반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정량분석지수 (객관적지수)	남북한 정치·군사 부문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등의 이벤트데이터 분석과 남북한 경제와 사회문화 및 인도 부문의 동향데이터 분석

-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대립과 위기 상황을, 100에 가까울수록 화해·협력적인 상태를 의미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가장 위기적인 상태, 100을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
 - 지수에 따른 남북 관계를 5단계로 나누어 한반도 평화의 진전 혹은 악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¹⁾

< **HRI** 한반도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관계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화해·협력 관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중립적 관계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관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적대적 관계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 분석방법에 따라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나누어 각각 100점을 기준으로 지수를 측정하고 이들을 50 : 50의 비율로 종합하여 통합된 HRI 한반도평화지수를 산출함

$$\text{HRI 한반도평화지수} = \frac{\text{전문가평가지수}(100) + \text{정량분석지수}(100)}{2}$$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다른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전문가평가지수

- **(연구방법)** 분기별로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를 산출
 - 남북 간의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적 관계의 3가지 측면에서 분기별 남북 관계의 변화를 조사하여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수화
 - 5개 범주로 구성된 질문에 대한 응답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변환한 뒤 설문을 통해 설정된 각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를 산출함
- 남북 관계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수에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기대지수²⁾를 함께 산출함

○ 정량분석지수

- **(연구 방법)** 남북 관계를 크게 정치·군사 영역과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영역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측정하여 지수를 산출함
 - 정치·군사 영역은 이벤트데이터 분석으로,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영역은 동향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총 100점 만점의 지수를 산출함
- **(이벤트지수)** 남북 간에 일어난 정치·군사 관련 주요 사건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하였음

2)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한 기대지수는 반드시 다음 분기의 한반도 평화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다만 현 시점에서 본 단 기간 내의 남북 관계의 흐름 및 경향을 미리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 기존의 이벤트데이터 분석방법을 기본 모델로 하였으며, 남북 관계의 특성에 맞게 가중치와 범주를 수정하여 적용하였음³⁾
 -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50점을 기준으로 구분된 사건 범주에 따라 배점한 뒤 분기별로 합산하여 평균치를 산출하였음
 - 기초 데이터는 「연합뉴스」와 통일부의 「남북 관계 일지」를 바탕으로 하였음
- (교류지수) 남북 간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분야의 핵심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실제 집계된 동향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
- 경제 영역과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핵심 변수들 14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수치를 측정하였음 (부록1 참고)
 -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기와 이전 4분기를 포함하여 총 5분기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매분기마다 교류 수치를 표준화 (Normalization)하였음⁴⁾
 - 표준화된 값을 분기별 평균값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0에서 100점까지 배점하였음
 - 기초 데이터는 통일부 발표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과 「남북협력기금」 월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3)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나 WEIS(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등의 기존의 이벤트 데이터 분석모델은 주로 통계적 분석을 위한 모델이므로 평화 지수 연구에 그대로 적용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국제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지수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강도에 따라 새롭게 11 단계로 분류된 사건 범주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4) 급변하는 남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기별로 변수들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치를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이동평균법(Simple Moving Average)을 적용하여 해당 분기와 이전 연도를 포함 총 5분기 값의 평균을 매 분기마다 다른 평균치를 산출하였으며, 이 값을 기초로 표준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2. HRI 한반도평화지수 조사 결과

- (종합평가) HRI 한반도평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남북 관계는 긍정적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분기에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

< 2009년 3분기 HRI 한반도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평화지수					기대지수
	정량분석지수	전문가평가지수		전문가평가지수		
		교류지수	이벤트지수			
지수	40.2	39.8	31.5	48.1	40.5	53.8

- 2009년 3분기 HRI 한반도평화지수 조사결과 40.2로 나타냄으로써, 현재의 남북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3분기의 평화지수는 40.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남북한이 아직 긴장 관계에 있으며 남북 간 대화와 갈등이 교차하는 중립적 상태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최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문과 현정은 회장의 방북,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 방남 이후, 남북 관계는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정량분석지수와 전문가평가지수를 비교했을 때, 두 지수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음
 - 3분기의 정량분석지수는 39.8이며, 전문가평가지수는 40.5로 두 지수는 0.7포인트의 아주 근소한 차이만 나타냄
 - 이는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현재 남북 관계와 실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거의 일치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2009년 4분기 전문가들의 기대지수 분석 결과, 향후 남북 관계가 현재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4분기의 기대지수는 53.8이며 현재 종합지수 40.2와 비교할 때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이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북미 간 양자회담 논의가 전문가들의 향후 한반도의 평화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통해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임
 - 정량분석지수만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3분기는 지난 분기에 비해 남북 관계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29.3을 기록했으나 3분기 39.8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되었음을 보여줌
 - 이벤트지수의 경우 지난 분기 36.4에서 48.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교류지수 또한 22.3에서 31.5로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였음
 - 이는 남북 관계가 지난 분기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의 강경한 대결구도에서 최근 들어 유화적인 구도로 호전된 데 기인함
 - 3분기의 정량분석지수를 구성하는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를 비교해 볼 때 이벤트지수가 교류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3분기 현재 이벤트지수는 48.1, 교류지수는 31.5로서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관계가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3분기 들어 북한이 억류자 석방 및 조문단 파견 등 유화적 자세로 변화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아직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있으므로 교류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 모두 중립 상태인 5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전반적으로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성향별 분석)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는 현재 남북 관계를 다소 긍정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향에 따른 3분기 전문가평가지수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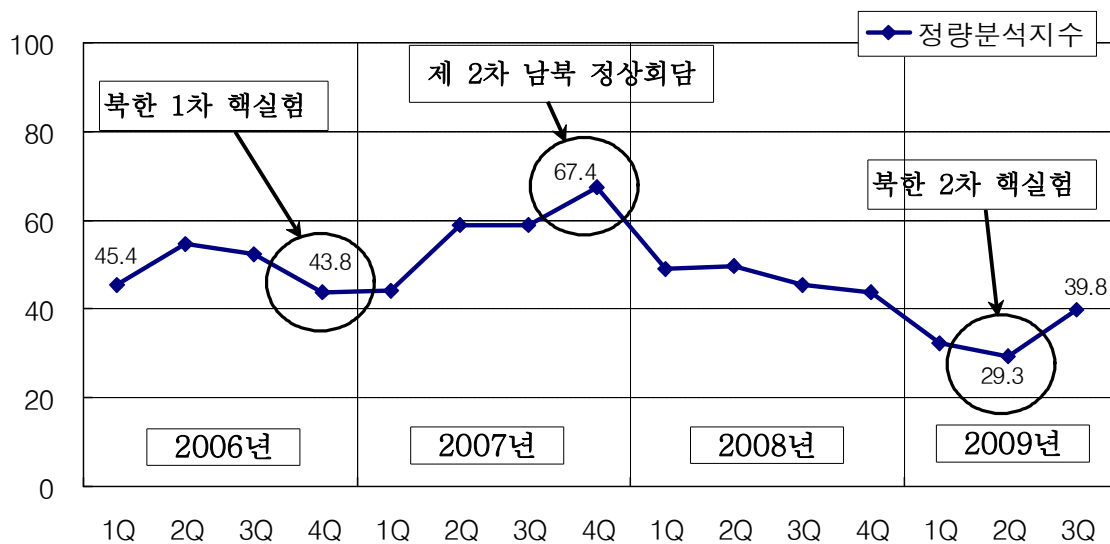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지 수	50.2	57.6	38.1	54.4	37.8	51.7	40.5	53.8	40.2

- 한반도 및 남북 관계 전문가 6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분석 결과, 현재 전문가평가지수는 40.5, 기대지수는 53.8을 기록하였음
- 전문가 성향에 따른 평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보수적 성향일수록 현재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았고, 진보적 성향일수록 부정적으로 보았음
 -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는 각각 50.2, 38.1, 37.8로, 보수 성향의 전문가는 진보 성향보다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기대지수에 있어서도 보수, 중도, 진보는 각각 57.6, 54.4, 51.7로서 같은 경향을 보였음
 - 이는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일수록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반면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보다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관계 진전과 화해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정량분석지수의 장기적 추이) 정량분석지수의 장기적 분석결과 **2007년 4분기** 남북 관계는 가장 평화로웠고, **2009년 2분기**에 가장 악화되었음
- (조사 기간 및 방법) 2006년 1분기~2009년 3분기까지 이벤트데이터 분석 방법과 동향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정량분석지수를 산출하였음⁵⁾
 - 이벤트지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합뉴스」와 「남북관계 일지」에 나온 남북 간의 주요 사건·사고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교류지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동향」을 토대로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분야의 핵심변수들을 분석하였음
- 정량분석지수는 2007년 4분기 67.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9년 2분기에 29.3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5) HRI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해부터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량분석지수가 작성되었으며 2009년 3분기부터 전문가 설문조사가 포함된 통합지수로 산출되었다. 설문조사는 이전 과거에 대한 장기적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2006년부터 동향데이터와 이벤트데이터를 조사한 정량분석지수만을 조사하였다.

-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본격적인 남북경협 확대가 이뤄졌던 2007년 4분기 남북 관계는 67.4로서 가장 좋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남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2차 핵실험, 그리고 한국의 PSI전격 참여선언이 이뤄진 2009년 2분기에 정량분석지수는 29.3이며, 남북 관계는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9년 3분기 들어 남북 관계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정량분석지수는 39.8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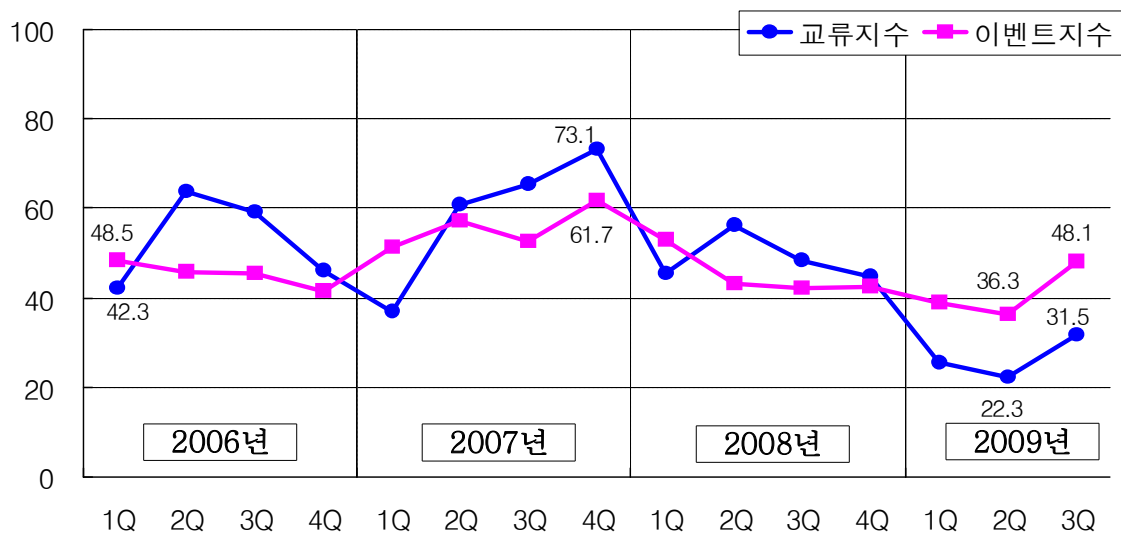
< 정량분석지수 장기적 추이 >



- (교류 및 이벤트지수 추이)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 모두 2009년 3분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교류지수의 변화폭이 두드러짐
 - 연도별 정량분석지수는 공통적으로 2007년 4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9년 2분기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이벤트지수는 최대치 61.7(2007년 4분기)로 나타났으며 최소치는 36.3(2009년 2분기)로 나타남
 -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교류지수는 최대치 73.1(2007년 4분기)을 기록하였으며 최소치는 22.3(2009년 2분기)을 기록하였음

- 2009년 3분기 들어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 모두 반등하였음
 - 2분기와 비교할 때 3분기 이벤트지수는 36.3 → 48.1로, 교류지수는 22.3 → 31.5로 상승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긍정적 변화 조짐이 뚜렷함을 보여줌
 - 3분기 들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회장의 방북, 억류직원 석방, 조문단 방남, 남북어민 귀환 등 경색된 관계를 푸는 주요 사건들이 지수의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12.1 조치의 해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성사, 그리고 정부의 인도적 지원의 재개로 인해 교류지수도 함께 반등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벤트지수 보다는 교류지수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남
 - 정치·군사 분야를 분석한 이벤트지수의 경우 표준 편차가 6.95인데 반해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분야를 분석한 교류지수의 경우 15.02로 나타남
 - 이는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으로 상호 갈등적 사건과 호혜적인 사건들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남북 관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분야의 경우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분기별 지수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남⁶⁾

<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 추이 >



6) 이벤트지수의 경우 분기별로 사건을 종합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남북 관계의 특성상 갈등적인 사건들과 호혜적인 사건들이 분기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지수가 다소 평균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교류지수의 경우 남북 간 교류의 흐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3. 남북 관련 우선 정책 과제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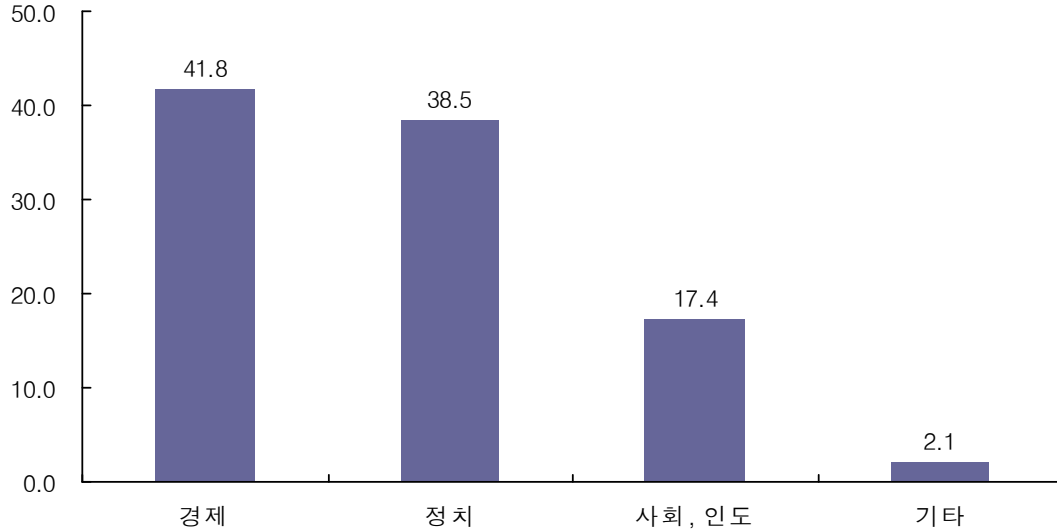
-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
 -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적 태도로의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63명의 전문가 그룹 가운데 90.5%의 전문가가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전체 전문가의 47.6%가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 및 적극적 관계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다수를 차지함
 - 한편, 전체 42.9%의 전문가가 '대북정책 원칙은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9%, '대북 압박의 수위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6%를 차지하였음
 -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북미 양자 회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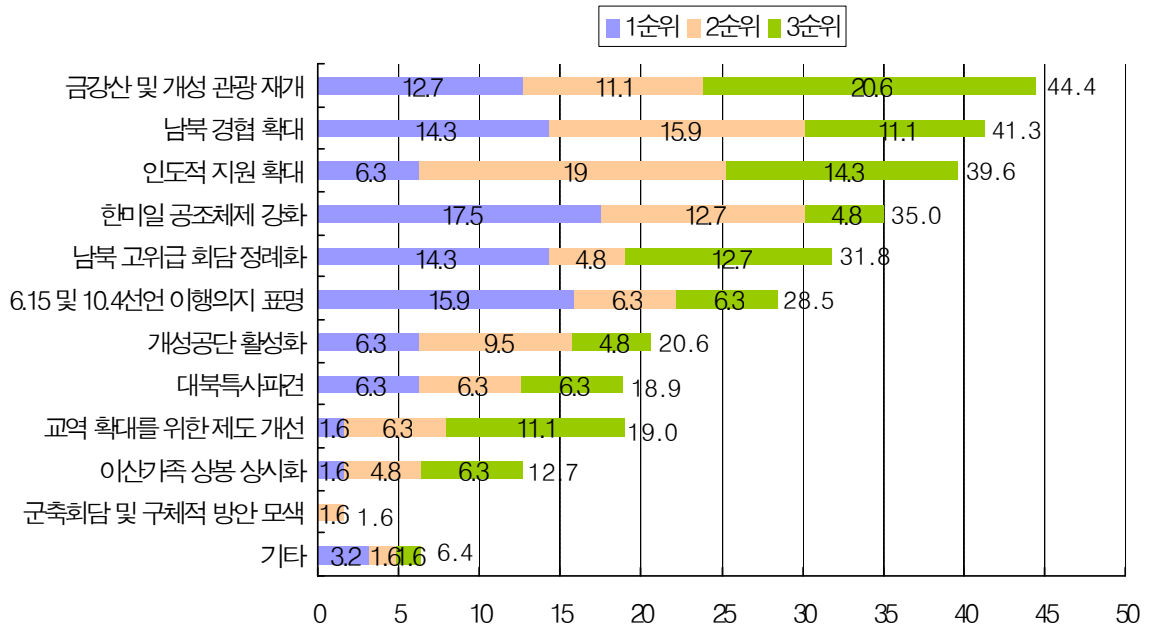
정부의 대응 방안	비중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 및 적극적 관계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47.6%
대북정책의 원칙은 유지하되 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방안 모색	42.9%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관계없이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7.9%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 하여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1.6%

-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우선 정책 과제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경제 부문의 협력 확대(41.8%)가 정치 부문의 관계 활성화(38.5%)나 사회·문화·인도적 부문의 교류 및 지원 확대(17.4%)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재개(14.8%)’가 지적되었으며, 이외에 ‘남북 경협 확대(13.8%)’, ‘개성공단 활성화(6.9%)’, 그리고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6.3%)’의 순으로 정책 과제들이 지적되었음
 - 정치 분야에서는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11.6%)’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지적되었고, ‘남북 고위급 회담 정례화(10.6%)’, 6.15 및 10.4 선언 이행의지 표명(9.5%)’,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6.3%)’ 등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나타남
 - 사회·문화·인도적 부문에서는 ‘쌀·비료 및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의 확대(13.2%)’가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고,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4.2%)’ 역시 정책 과제로 지적되었다
 -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정치·군사 부문의 관계 진전보다는 경제 분야 또는 인도적 분야의 활성화와 대화 복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량분석지수 조사에서도 경제와 사회문화 및 인도적 부문의 교류지수가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였으므로,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남북 관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 분야 - 영역별 >



<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 - 종합 >7)



7) 그래프의 맨 우측에 나타난 수치는 독자의 혼돈을 우려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3가지 질문의 응답률을 단 순히 총합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300%가 기준이 되는 수치이다. 즉, 정책의 1순위에서 3순위까지 100%를 기준으로 한 각각의 응답률을 정책별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300% 기준의 수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100% 기준으로 환산하면, 금강산 및 개성관광의 재개 항목의 경우 44.4 → 14.8%로 변환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재개(14.8%)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음
 -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회담이 재개되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단되었던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이 재개된다면 향후 한반도평화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1순위의 응답들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가 전체 17.5%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북미 양자 회담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최근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이 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일본과 대북 정책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재 대북 압박 및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통해서만이 효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부는 경제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북 전문가들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남북 경협 확대 등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주문함과 동시에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1순위로 지적하였음
 - 이는 경제 및 인도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당면한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일본과의 대북 정책 공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와 북일 관계 진전의 움직임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일본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핵문제 및 한반도 현안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경제연구본부 홍순직 수석 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최성근 선임 연구원 (3669-4405, csk01@hri.co.kr)
 신희철 연구원 (3669-4125, hcshin@hri.co.kr)

< 부록 1 >

< 동향 데이터 분석의 핵심 변수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기금은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으로 구성

<부록 2>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목적)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전문가 평가지수 산출을 위하여 지난 3개월 및 향후 3개월의 남북관계 진단 및 전망
 - 조사 시기 : 2009년 9월 22일 ~ 28일 (7日)
 - 조사 대상 : 남북 관계 전문가 63명

2. 조사 내용

□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

○ 정치·군사 관계

(문)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9.0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8.6
3. 보통정도	31.7
4. 동의하는 편이다	20.6
5. 매우 동의한다	0.0
계	100.0

(문)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5.9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2.2
3. 보통정도	28.6
4. 동의하는 편이다	33.3
5. 매우 동의한다	0.0
계	100.0

(문) 북한과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호전되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6.3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0.6
3. 보통정도	27.0
4. 동의하는 편이다	42.9
5. 매우 동의한다	3.2
계	100.0

(문) 북한 내부 체제가 안정되고 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1.1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8
3. 보통정도	38.1
4. 동의하는 편이다	38.1
5. 매우 동의한다	7.9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1.1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8.1
3. 보통정도	25.4
4. 동의하는 편이다	25.4
5. 매우 동의한다	0.0
계	100.0

(문)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0.0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0.6
3. 보통정도	42.9
4. 동의하는 편이다	34.9
5. 매우 동의한다	1.6
계	100.0

○ 경제적 관계

(문) 남북 경협사업의 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1.1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5.4
3. 보통정도	31.7
4. 동의하는 편이다	28.6
5. 매우 동의한다	3.2
계	100.0

(문) 남북 교역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6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19.0
3. 보통정도	38.1
4. 동의하는 편이다	34.9
5. 매우 동의한다	6.3
계	100.0

(문) 북한 경제가 점차 개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7.9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1.3
3. 보통정도	30.2
4. 동의하는 편이다	20.6
5. 매우 동의한다	0.0
계	100.0

(문)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2.7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1.3
3. 보통정도	36.5
4. 동의하는 편이다	9.5
5. 매우 동의한다	0.0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1.1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8.1
3. 보통정도	36.5
4. 동의하는 편이다	12.7
5. 매우 동의한다	1.6
계	100.0

(문)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6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5.4
3. 보통정도	30.2
4. 동의하는 편이다	39.7
5. 매우 동의한다	1.6
계	100.0

○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문)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1.1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14.3
3. 보통정도	38.1
4. 동의하는 편이다	31.7
5. 매우 동의한다	4.8
계	100.0

(문)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7.9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9.7
3. 보통정도	49.2
4. 동의하는 편이다	3.2
5. 매우 동의한다	0.0
계	100.0

(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많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25.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4.9
3. 보통정도	34.9
4. 동의하는 편이다	4.8
5. 매우 동의한다	0.0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1.1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8.6
3. 보통정도	42.9
4. 동의하는 편이다	17.5
5. 매우 동의한다	0.0
계	100.0

(문)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6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7.0
3. 보통정도	23.8
4. 동의하는 편이다	42.9
5. 매우 동의한다	0.0
계	100.0

□ 최근 남북관계 이슈 진단

○ 남한의 대응 방안

(문) 억류자 석방 및 조문단 파견 등 일련의 북한의 대남 유화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항 목	%
1.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여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임	1.6
2. 북한의 태도에 상관없이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	7.9
3. 대북 정책의 원칙은 유지하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 방안 모색	42.9
4. 당국 간 채널 복원, 현안문제 해결 등 적극적인 관계 활성화의 기회로 삼음	47.6
계	100.0

○ 대북 정책의 우선 순위

항 목	%
1. 남북 정치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10.6
2. 조문단 파견 답방 형식의 대북 특사 파견	6.3
3.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체제 강화	11.6
4.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경험 확대	13.8
5.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재개	14.8
6. 개성공단 활성화 본격협약 (북한 근로자 기숙사, 군 통신장비 지원 등)	6.9
7.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	13.2
8.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4.2
9. 남북 교역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3통, 경험합의서 등)	6.3
10. 남북 군축 회담 제의 및 구체적인 방안 모색	0.5
11. 6.15 공동 선언 및 10.4 선언의 이행의지 표명	9.5
12. 기타	2.1
계	100.0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7	2.1	0.4	-0.7	1.5	-2.7	-5.4	-6.4	-1.0	-2.6
EU	3.0	2.7	0.7	0.7	-0.3	-0.3	-1.8	-2.5	-0.1	-4.8
일본	2.0	2.3	-0.7	4.0	-4.3	-5.1	-12.8	-12.4	2.3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2	-3.0

주 1) : 2008년, 2009년 2/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 28일	10월 5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28	3.22	-0.06%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89.69	89.59	-0.1¥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4634	1.4604	-0.003\$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9,789	9,488	-301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10,010	9,732	-27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45	4.36	-0.09%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195.9	1,178.3	-17.6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675.6	1,644.6	-31.0p

주 : 10월 5일 지표는 전일(10월 2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 28일	10월 5일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66.90	69.89	2.99\$
	Dubai	89.30	36.45	46.80	71.85	64.02	68.08	4.06\$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51.94	252.87	0.9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